

너희 중에 큰 자

마 23:1-12

어느 날,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가 인도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고양이는 그 당시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을 말하는 것이고, 쥐는 인도를 빗댄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쥐가 고양이를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쥐가 쥐약을 먹고 고양이 앞에서 춤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을 것이고, 그때 쥐는 고양이의 밥이 되겠지만, 고양이도 쥐약 먹은 쥐를 먹었기 때문에 함께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쥐약이란 희생을 뜻합니다. 인도의 국민들이 희생을 각오한다면 얼마든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당시 유대인의 선생이요 지도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자기들도 행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지키도록 강요하면서도, 그들 자신은 그런 일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앞장서서 희생하거나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무슨 일을 했다면,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거룩하게 꾸며 입고 다니면서 기도할 때에는 길거리에서 큰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윗자리와 높은 자리만 찾아서 앉으려 하고, 길거리에서는 인사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11)”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으려면, 우선 먼저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가르치거나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거나 또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런 위치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면, 그런 사람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말만 그럴싸하게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지도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대통령만이, 국회의원들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모두가 다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목사나 평신도 지도자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각 부서를 이끌어가는 임원들 모두가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시골의 마을이장이나 노인회장도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모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도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숭선하여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오늘부터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게 하리라(수 3:7)”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모세를 아꼈던 것처럼, 너도 아끼고 잘 돌봐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고 보살피 주셔야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녀를 돌보게 되는 것이나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위치에서 지도자의 임무를 수행하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고, 또한 그 거룩한 뜻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15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첫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그러자 흐르고 있던 요단강물이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뒤따르던 백성들은 하나 둘씩 강을 무사히 건너서 여리고성 맞은편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멈추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도 함께 강을 건너다가 그 마른 강 중앙에 이르렀을 때에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제사장들은 강 중앙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만약 강물이 다시 흐를 경우, 그 강물 속에 그대로 수장될 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지도자로서 그 참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성도들 앞에서 참으로 경건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흠 잡힐 데 없이 살았다(2:10)’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도 그 사실을 증명해주실 거라고 말할 정도이니, 얼마나 확신이 넘치는 태도입니까?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으려면 진실로 희생과 헌신을 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 자신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남에게만 그럴싸하게 가르쳤더라면, 그가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영국의 BBC 방송에서 영국인 100 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영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1 위를 차지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 경(Sir Winston Churchill) 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를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를 보면, 그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아...’ 그의 학업 성적 역시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특히,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 재수해서 겨우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던 사람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인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를 제치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문제가 많던 그 처칠이 변하여 영국인들이 으뜸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처칠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의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힘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부터인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생각하기는 쉬운데 그가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결단만 가지고서는 자신의 잘못된 생활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처칠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든지, 국회에서 일할 때에나, 그는 항상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이 처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려고(2:11)’ 아버지가 자녀를 타이르듯이 권고하며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소유와 능력을 드러내면서 자랑을 하거나 뽐내면서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될 경우,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유익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야 무슨 일이든지 자신 있게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힘쓰면서 큰소리치는 사람들은 언제나 뒷짐 지고 구경하거나 잔소리만 늘어놓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사는 사람은 말보다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조용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좀 더 높아지거나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말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훌륭한 아버지/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그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어떤 책임을 맡게 되든지, 지도자로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